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3957호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산업]
더 똑똑해진 정수기
생활가전사 경쟁 치열
05

Life

[유통]
맥도날드
협력업체와 상생
L1

한강철교 밑 도롱뇽·버들치…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

지난 13일 서울 이촌한강생태공원 생태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위에서 뛰어 놀고 있다.

이촌생태공원 낚시 제한구역에서 한 시민이 6대의 낚시대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

되살아나는 서울

⑯ 용산구 '이촌한강생태공원'

자연성 회복 사업으로 공원 조성
습지·산책로 등 시민의 공간으로

식물·하천 수질 관리는 미흡
낚시·자전거족 등 시민의식 필요

등대처럼 생긴 전망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한강대교 북단 철교 밑에는 초록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촌한강생태공원이 있다.

서울시는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자연형 호안과 소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이촌한강생태공원의 문을 열었다.

이촌한강생태공원은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약 1.3km 구간에 9만7100㎡ 규모로 만들어졌다. 공원에는 생태 복원을 위한 자연형 호안, 천변 습지, 논습지와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놀이터 등이 조성됐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우와~ 소금쟁이가 두 마리나 있네?"

지난 13일 이촌한강생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돌아다니는 소금쟁이의 가느다란 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온 조영균(36) 씨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라서 습지는커녕 논조차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가까운 곳에 생태공원이 생겨서 기쁘다"며 밝게 웃었다.

이촌한강생태공원 습지에는 경남 창녕군에서 기증받아 심은 우포늪 습지식물 6종이 식재되어 있다.

조 씨는 "안내푯말을 보면 창포, 부들, 매자기, 송이고랭이 등 4600본의 습지 식물을 심어놨다고 나왔는데 아직 다 자란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공원은 일반 근린공원처럼 처음부터 아름답게 완성된 식물을 빽빽하게 심어놓는 게 아닌 습지 식물이 살만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생태공원을 찾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석영(29) 씨는 "정자에 앉아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며 미소 지었다.

이 씨는 "그런데 공원을 조성만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오면서 봤는데, 습지는 물이 다 말라 있고, 전망대 뒤쪽은 예초 작업을 안 해 놔서 풀들이 지저분하게 자라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습지는 상태에 따라 양수기로 물을 채워 넣는데 전날 비가 와서 기계를 꺼놓은 것 같다"며 "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망대 뒤편에 심은 쇠무릎은 최대 1m까지 자라는 식물"이라며 "야생 경관 조성을 위해 따로 예초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가 '쌩쌩'… 실종된 시민의식

이촌생태공원에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훼방꾼들이 존재했다. 도로 위의 무법자 '자전거족'이다.

용산구 보광동에서 온 박윤성(24) 씨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려 부딪힐 뻔했다"면서 "심지어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행로로 달리는 사람도 있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한강 자전거길 제한속도인 시속 20km를 10km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생태공원 강변 쪽과 도로 쪽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각각 따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일부 자전거족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태 복원을 위해 조성된 이촌한강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한강생태공원은 낚시 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낚시를 할 수 있다.

제한사항에는 '낚싯대를 4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 청원 경찰이 24시간 근무하며 계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위반사항을 다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강공원을 찾은 이윤희(64) 씨는 "강변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한강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자리를 털고 나왔다"며 "사람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인데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물을 유람선 운항 등의 이유로 호수처럼 가둬놔 물이 흐르지 않아 나는 냄새"라며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강을 옛 하천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이촌한강생태공원 논습지 조감도. /서울시